



## 역파송, 지속 가능한 타문화권 선교로 향하는 길

국내 유입 이주민을 선교사로 훈련하여 선교지로 재배치해야

이주민선교는 미래의 선교 방향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의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이주민선교 방안은 무엇일까? 먼저 그동안의 선교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세기의 선교는 서구 기독교가 주도했으며, 많은 선교적 열매를 거둔 동시에 제국주의로 이어져 식민지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한편, 1970년대는 선교 모라토리엄이 선포된 시기였다. 이에 관하여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의 선교책임자 제이 마탱가는 "현지인 주도의 토착 선교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탱가가 주장하는 "현지인 주도의 선교"는 곧 열방의 '종족 내부자 중심 선교'를 의미한 것이다. 현대로 넘어와서, 디아스포라 선교학자 김성훈은 "이제 한국교회도 다문화·다종교·다민족 시대에 진입하였기에 이주민들이 각 종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복음적 역량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현지인이 선교를 주도하도록 종족 내부자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국내 이주민선교 전문가들은 성경의 '역파송' 사례를 인용하여 그 가능성을 말한다. 안산 새생명태국인교회의 홍광표 목사는 "이사야 66장 18~21절의 말씀에서 역파송 전략이 선포된다"며, 이 말씀에서 "디아스포라가 '연약한 나그네'라는 관점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열방의 제사장과 레위인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선교적 의지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에게 '디아스포라를 통해' 성취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사도행전 13장에서 역파송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본문은 안디옥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내용으로, 초대교회의 첫 선교사 파송에서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 즉 디아스포라도 파송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레위인이었고, 니게르라고 불리는 시므온은 흑인이었다. 루기오는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출신이었으며, 마나옌은 분봉 왕 헤롯 안티파스의 유모의 소생이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유대인이었다. 대표적인 역파송 선교사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인 것이다.

이처럼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교는 '이주'로 촉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이주하여 선교하는 보편적인 방식과 더불어, 이주민을 선교하여 그들을 재차 이주시키는 '역파송' 방식이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이다. 세계적인 이주민 선교학자 에녹 완은 역파송에 대해 "포스트 그리스도인이 선교를 위하여 디아스포라 종족을 고국 또는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성경적 역파송은 본토로 돌려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타문화권으로의 파송까지 포함한다. 위대국제선교회의

역파송 관련 선교 보고에 따르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가나 출신의 토니 선교사가 인도네시아 이주민을 섬기고 있다. 그는 한국에서 근로자로 있다가 훈련과정을 거쳐 선교사로 파송된 일꾼이다. 중국 광둥주에는 주일마다 아프리카 이주민 예배를 인도하는 콩고 출신의 필립(가명) 형제가 있다. 그는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하였다가, 역파송 선교사로 파송받아 중국에서 잠재력 넘치는 사역을 펼치고 있다. 두바이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필리핀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레이첼(가명) 자매도 있다. 그는 한국에 근로자로 입국하였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두바이로 향하였다. 전 세계 각지에서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사역이 역파송의 실제 열매들이다. 본지는 이와 같은 역파송 사례를 취재하여 10월 호에 담았다.

국내 이주민교회 역파송 사례 35면



# KWMA '2022 교회 중심의 선교운동 설명회' 개최

## 평신도 선교자원 동원 운동, 내년부터 본격 추진 계획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일상 삶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환대와 사회봉사를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마음을 가진 성도'(Mission-minded Christian, MMC)를 일으키는 운동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 평신도 선교자원 동원 운동은 기존 '타겟 2030'(Target 2030)에서 2030년까지 '100만 자비량 선교사'를 선교지로 파송하는 비전을 국내 교회와 해외 선교지 현실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이다.

KWMA는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방주교회에서 교회 및 선교 리더들, 평신도 선교 관심자들을 초청해 '2022 교회 중심의 선교운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KWMA 사무총장 강대홍 목사는 평신도 선교자원 동원 운동을 준비하게 된 배경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평신도들을 해외 단기팀으로 보내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등 많은 한국교회가 선교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미얀마, 태국, 파키스탄 등 세계 각국에서 선교사들의 비자 발급이 점점 어려워진 상황을 언급했다.

강 목사는 "과거 선교적 경험과 전

세계 선교 흐름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가 선교적 방향을 잡아가는 데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 운동은 주님의 몸 된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일종의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회가 10만 명의 선교 정병과 100만 명의 자비량 선교사를 파송하는 '타겟 2030' 운동을 17년간 진행해오면서 부딪혀왔던 현실적 한계를 소개했다.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좋은 교인들을 자비량 선교사로 해외에 내보내는 것에 대해 목회자들이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해외 선교 현장의 입장에서는 파송된 자비량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자칫 선교사가 자신의 사역을 포기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강 목사는 "그래서 100만 자비량 선교사를 강조하지 않고 '선교적 마음을 가진 성도'(MMC) 등의 표현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어지고, 기독 청년조차 신앙생활이 우선이 아닌, 물질이 우선이라는 통제가 나오는 이때 MMC 운동을 추진하

는 이유를 강 목사는 여섯 가지로 소개했다. 곧 ①선교사 파송 나이가 많아지고 ②젊은이가 타문화권 선교사로 파송 받을 채널이 적어지고 있는 가운데 ③가나안(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가 다시 교회로 회귀할 수 있도록, 또 ④교회가 사회로부터 받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탈피하도록, ⑤성도의 봉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선교의 주체로 회복되고 ⑥선교지에 필요한 재정 중 일부는 성도의 봉사로 해결해야 하는 점을 꼽았다. 강대홍 목사는 "교회가 전반적으로 폄하 받는 시대이고, 가나안 교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이름이 없이 구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사회는 그렇지 않다. 사회에 좋은 모양을 보여줘야 하므로, 이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먼저 아는 것(knowing)이 중요하지만, 야고보서의 가르침대로 아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doing),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하나님 사랑)와 이웃을 환대하고 사랑, 용서(이웃 사랑)하는 것이 책임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 호감도가 낮은 점을 들며 "교회가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은 십자가, 은혜, 환대"라며 "사회봉사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회가 사회봉사를 통해 세상에 나아가는데, 좀 더 구체적이고 전략적으로 사회에 접근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평신도 선교자원 동원 운동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 외에도 환대와 봉사에 관한 성경의 다양한 근거를 들어 "환대는 잘 알고 익숙한 사람을 대접하라는 말이 아니라, 낯선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것"이라며, 존 스톱트 목사의 생전 마지막 설교의 결론과 같은 '그리스도를 닮음, 예수 같이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목사는 "성경에 아볼로나 고넬료 등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예수를 믿는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며 "그 누군가가 바로 한국교회 성도가 되면 좋겠다. 우리가 고넬료 같은 사람이 되고, 또 고넬료 같은 사람을 많이 세우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했다.

한편, KWMA는 올해 각 교단 사무총장, 교단 선교부 이사장 및 총무 등과의 만남을 통해 평신도 선교자원 동원 운동에 대한 공감대를 꾸준히 형성해 왔다.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2박 3일간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교회와 함께 가는 선교'를 주제로 열리는 2022 제21회 한국선교지도자 포럼(한선지포)에서도 평신도 선교자원 동원 운동을 논의한다. 이후 2023년 1월 KWMA 정기총회에서 이를 주요 사업으로 보고하고, 2030년까지 운동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

고산기장·통합 정기총회  
'이주민 선교' 관련 안건 6·7면

[인터뷰] 맨프레드 콜 박사  
·비숍 에프렐임 텐데로 8·9면



Feed The Children (사)한국위원회는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로서 식량 지원, 영양 관리, 재난구호, 교육프로그램, 시설 지원 등으로 북한을 포함한 국외 사업을 행하며, 국내 이주민 가정의 어린이들을 섬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20억의 인구가 충분한 영양을 보장 받지 못하는 가운데 Pandemic으로 1억 3천만 명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나눔이 더욱 필요합니다

(사)피드더칠드런 한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 전화 031.381.1474  
http://feedthechildren.or.kr





# 불교권 선교지에서 자(自)신학에 도전하는 이주민 공동체

## 안산 새생명태국인교회의 디아스포라 역파송 사례

새생명태국인교회 담임목사  
KIMA 태국위원장



글

홍광표 목사

새생명태국인교회는 2006년에 개척되어 현재까지 여러 차례 역파송이 이루어져 왔다. 특이한 것은, 역파송 사례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주님을 처음 영접하고 회심한 태국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신학을 공부하여 태국에 돌아간 후 현지 교회를 개척하고, 더불어 교단을 설립하여 선교사 파송의 토대를 세웠다. 이는 교단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타문화권 선교를 준비코자 함이었다.

본격적으로 역파송 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필자가 본 태국 교계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태국 교계에는 전반적으로 신학 공부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는다. 태국은 기독교 문화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역자들 가운데 성경 공부 한 번 제대로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한 태국에서는 신학대학이든 대학원이든 어느 한 과정을 이수하고 전임 사역을 3년 정도 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 충분한 성경 지식이 목회의 바탕이 되지 못하는 현실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답은 한국으로 이주해온 태국인 이주민선교에서 찾을 수 있었다.

필자는 국내에서 이주민선교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우리 태국인 성도들과 한국에서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고민해보았다. 그들은 대다수가 근로자의 신분으로 입국한 단기 체류자였기에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평균 3년이였다. 사역을 통해 이주민들의 세계관을 변화시키고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했다. 3년이란 시간을 30년처럼 활용해야 했던 것이다.

그렇게 떠오른 방안이 '공동체' 훈련이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쉼 없이 훈련할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교회 장소를 옮겨 숙소를 마련했고, 이곳에서 재한 태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우리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2시간씩 말씀을 나누며 기도했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함께 성경 통독을 하고 삶을 나누었다.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는 8시부터 10시까지 두 시간 예배를 드렸다.

매주 주말은 여기저기 가족들이 모여 마치 명절과도 같았다. 토요일은 온종일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두 시간 동안 기도 모임을 가졌다. 주일에는 새벽부터 분주히 주방팀의 섬김이 시작되면 오전 예배 찬양팀의 준비가 이어지고, 사역자들은 멀리서 오는 성도들 픽업을 나갔다. 그리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주일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나누었다. 이후 활동으로는 신학생들을 위한 신학 강의, 또는 성도들을 위한 한국어와 바리스타 수업 등 다양한

강의가 개설되기도 했다. 저녁 6~7시 경에는 차량 운행으로 이들을 각 공장 기숙사에 모셔다드렸다. 그렇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 교회로 복귀하면 때로는 월요일 새벽 1시에 사역이 마무리되기도 했다.

이러한 삶이 1년, 2년 지속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우리 새생명태국인교회는 온전히 삶을 나누는 예배 공동체이자 비전 공동체가 되었다. 서로 하나가 된 성도들은 영적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품게 되었다. 때로는 함께 살면서 갈등을 빚을 때도 있었지만 딱히 어려움이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가 우리를 더욱 견고히 하나 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성도들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곧 온 교회의 문제가 되었다. 성도들의 가난은 곧 나의 가난이었고, 성도들의 다양한 문제는 모두 내 가족의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며 견디고 해결하려 했다.

우리 새생명태국인교회는 올해로 16주년이 되었다. 그동안 역파송된 이들은 현재 1개의 기존 교회에 담임목사로, 이외에도 여러 지역교회의 부교역자로 사역하고 있다. 또한 16년간 배출된 신학생이 60명이 넘으며, 그중 졸업생을 중심으로 6개의 교회가 개척되었다. 개척된 6개의 교회 중 1개의 교회는 기존 교단에 소속되었고, 나머지 5개의 교회는 연합하여 태국 복음주의 연맹 산하에 '새생명비전교회연합(웅견 크리스챤 니밋 치윳마이)'이라는 이름으로 교단을 세웠다. 이 교단은 현재 태국 전체 교단 가운데 목사

안수 기준이 가장 높은 교단으로, 신학부 4년과 신학대학원 3년 총 7년을 공부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태국에서 유일한 교단이 되었다.

새생명비전교회연합은 태국에서 가장 큰 신학교인 방콕신학교에도 영향력을 미쳤다. 원래 방콕신학교의 목회학석사는 일반학부 졸업생도 입학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신학학부 졸업생만 입학이 가능하도록 자격을 바꾼 것이다. 이는 신생 교단을 통해 태국에서 가장 큰 신학교의 입학내규와 기준이 다시 세워지는 광경이었다.

또한, 우리가 태국에 첫 번째로 개척한 방콕 새생명비전람성교회는 지역 전도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디아스포라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디아스포라를 통한 타문화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립(Self-support), 자치(Self-government), 자전(Self-propagation)'에 이어, '자신학화(Self-Theologizing)'에 대한 도전으로 쏘박목사와 포노목사가 목회학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국내 태국인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아 이루어 낸 결과이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의 역파송과 이사야 66장 18~21절 말씀처럼, 성경적 역파송이란 A국에서 한국으로 온 디아스포라들을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다시 A국과 B국과 C국으로, 세계열방으로 파송하는 것이다. 결국 디아스포라 선교는 곧 세계선교이며, 열방선교다.

### Relief

Based on the nature of Sorok's clientele the foundation provides temporary relief which varies from food, shelter and medical assistance. Sorok also launch short-term emergency relief projects under this program in times of calamity or disaster in the Philippines.

### Rehabilitation

Sorok provides a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program for social integration and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especially for persons affected with leprosy and homeless street people.

### SUFI CORE PROGRAMS

Sorok encourages and help individuals to be empowered mentally, physically and spiritually through the following projects.

### Empowerment

In line with the vision of the foundation, this program was created to ensure sustainability of the beneficiaries, the organization and even the helping mindset of the Filipinos.

### Sustainability

**SOROK UNI COMMUNITIES**

- NATIONAL CAPITAL REGION
- SAN ANTONIO QUEZON PROVINCE
- REGION IV-B OCCIDENTAL MINDORO
- MCS PASOLOBONG, ZAMBOANGA CITY



# 신(新)실크로드 선교와 디아스포라



위대국제선교회 대표  
본지 발행·편집인

글

문창선 선교사

유라시아를 가로지르는 경제와 문화 교류의 역사적 경로 '실크 로드'는 현재까지도 인류의 관심사로 남아 있다. 우리는 한족과 로마의 문명 사이에 있는 '비단길'을 동서의 육지를 가로지르는 개념 또는 다양한 민족 간 접촉의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실크로드의 역사는 국경을 넘는 이동, 재정착, 그리고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이자 예술적 교류와 종교의 확산 및 혼합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실크로드를 향한 관심은 현대로 와서 중앙아시아 송유관 또는 중국의 일대일로 (One Belt, One Road)와 같은 21세기 대규모 신(新)실크로드 경제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이처럼 실크로드는 과거와 현재의 경제적 물꼬이며 현재와 미래의 선교를 여는 길목이다.

실크로드의 초기 상인이자 이란어를 구사하는 소그드인은 그들의 고향인 사마르칸트와 제라프산강 계곡(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 서쪽으로 흑해, 남쪽으로 카슈미르 산맥을 지나 동남아시아의 항구까지 도달했다. 소그드인들은 8세기에 중국 사회에 진출하여 동방 기독교가 중국에 전파되는 것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랍군에 의하여 소그드족의 영향력이 쇠퇴하자 다양한 민족의 무슬림 상인들이 소그드인을 대신하여 실크로드를 주도하게 되었다.

이처럼 실크로드는 기독교와 동방 선교의 진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실크로드를 통해 복음의 이동이 촉진되면서, 네스토리안 교회의 동방선교는 12세기까지 아시아를 관통하여 시베리아까지 뻗어갈 수 있었다. 실크로드를 거쳐 이동한 복음은 동시대 인도와 수마트라까지 영향을 주었으며, 중국에도 네스토리안 교회가 세워져 '경교'라 불리었다. 결국 실크로드는 투르크메니스탄·시베리아·중국·인도·인도네시아·몽골·만주·일본 등으로 네스토리안 선교를 퍼트린 통로가 되어, 11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넓게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

실크로드로 퍼져나간 것은 복음만이 아니었다. 이슬람 역시 중국에 흘러 들어갔으며, 조나단 N. 립만의 저서 <친숙한 이방인: 중국 북서부의 무슬림 역사>에서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이렇듯 기독교와 이슬람의 선교정신은 실크로드에서 교차하며 충돌해왔다. 8세기 초 네스토리안 기독교인들은 중앙아시아에 유입된 이슬람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고, 안타깝게도 실크로드의 안방을 무슬림에게 내주고 말았다. 정치적 영향력이 약했던 동방 기독교가 사회 변혁에 한계를 맞닥트리면서 결국 이교도인 이슬람에 세력을 넘기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오늘날 중앙아시아는 이슬람이라는 역사적 정체성을 갖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날의 실크로드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의 탁월한 시나리오로써 디아스포라 선교의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실크로드를 통해 이동하는 디아스포라는 그

자체로 선교적 가능성이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영역의 회복이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선교전략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신(新)실크로드이다.

과거 실크로드에 관한 연구는 잊혀왔던 기독교 선교의 발자취를 좇는 일이다. 이와 더불어 그 땅에 가장 적합한 신학인 자(自)신학으로 중앙아시아 신학을 개발하고, 자(自)선교학으로 중앙아시아 선교학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크로드 지역의 '고려인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 역할의 중요성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놀라운 것은 실크로드의 영향권에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해당 지역을 떠나 북미와 유럽, 그리고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현재의 디아스포라 현상과 맞아떨어지며, 신(新)실크로드 선교는 곧 디아스포라 선교로 완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21년 세계이주보고서(IOM)에 따르면 과거 실크로드 영향권에 있던 국가 출신의 디아스포라는 약 9050만 명에 달하며, 이들 중 약 103만 명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한국 선교계는 이들을 선교의 통로로 받아들이고 연계 사역을 꾸준히 이어 나가야 한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야웨 신앙에 근거한 선택받은 민족으로 여기며, 이방 국가 혹은 이방인과 배타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구약성경은 '게르'라고 불리는 그룹을 등장시켜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보호하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이주민 신학과 디아스포라 선교학을 지탱하는 핵심적 가치이다. <초대교회의 복음전도>의 저자 마이클 그린은 "초기 기독교의 부흥을 이끈 것은 완벽한 계획이나 훌륭한 지도자들의 전략이 아닌, 무명의 헌신되고 용맹스러운 성도들에 의해서였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실크로드를 통해 동방 선교와 경교를 아시아 지역에 확장시킨 이들은 무명의 성도이지 않았을까? 신(新)실크로드의 시대에 즈음하여, 우리는 "땅끝"을 장소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민족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하신 것을 지역만이 아닌 대상으로도 볼 수 있어야 한다. 전도와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실크로드 주변 국가에서 온 이주민이 공존하고 있는 한국의 지역은 또 하나의 실크로드 선교지임이 틀림없다.





## DIASPORANewspaper 디아스포라신문

디아스포라신문이 미션펀드 후원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월 1만원의 후원은 디아스포라신문을 통한 이주민문서선교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국민 264401-04-34307

미션펀드후원방법 <https://go.missionfund.org/diasporanewskr>



## 울산 지역 다민족 다문화를 위한 선교대회&세미나 개최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주최하고 울산다사모(다민족 다문화를 사랑하는 모임), 예정합동 울산노회와 울산노회세계선교위원회가 주관하는 '다민족 다문화를 위한 선교대회&세미나'가 9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진행되었다.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1차 행사는 25일 주일 태화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교 패러다임이 타국에 가서 하는 속주주의 개념에서 타문화권 사람을 중심으로 한 속인주의 개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전을 주었다. 위대국제선교회 대표 문창선 선교사가 '국내 이주민 선교현황과 전략,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KWMA 사무총

장 강대홍 선교사가 '울산의 선교적 사명 Imago Dei & Hospitality', KWMA 미래한국선교개발센터장 정용구 선교사가 아프간 특별기여자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주민 사역자들과 교회 담임목사, 선교담당 리더 등 이주민 사역 관심자들을 위한 2차 행사는 26일 우정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주민 사역 전략과 사례 등을 보다 심도 있고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강대홍 선교사의 키노트 스피치에 이어 문창선 선교사의 '이주민 정착 및 선교사역을 위한 준비'에 관한 주제 발제, 예동열 우정교회 목사의 진행으로 울산 명성교회, 울산지역 예수전도단, 울

산 열방선교교회, 울산 다사모 등 아프간 특별기여자를 위한 지역 사례 발표가 마련됐다. 이어 허정훈 선교사와 KWMA 아프간 커미티 하니프 작가의 '아프간 이주민 정착을 위한 이해와 섬김', KWMA 아프간 커미티 위원장 윤주홍 선교사의 '아프간 이주민 속 마음 알아가기', 온누리 남양주 M센터 박창홍 목사의 '온누리 M센터 지역 사례 발표', 울산경남 KWMA 사무총장 손승호 선교사의 '울산 이주민 사역에 대한 제안-울산 이주민 사역 전문가의 입장에서 제안', 예동열 목사의 진행으로 질의응답 및 울산 교계의 이주민 사역에 대한 제안, 성명서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행사 실무자는 "아프간 이주민 29가정 157명이 울산에 들어온 것을 계기로 울산 지역 700여 개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힘을 합쳐 다문화 사역자들을 돕고 이주민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선교의 차원에서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땅끝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앞에 와 있으면 그곳도 선교지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은 평신도들이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과도 긴밀히 연관된다"며 "지역마다 이주민 사역과 평신도 선교자원 동원 운동, 선교적 교회 운동 등이 활발하게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

## 평신도에서 목회자로... 몽골 성도의 역파송 열매

부천몽골교회 담임목사  
GMS 이주민선교연합회  
훈련원장



글

서기원 목사

부천몽골교회는 2003년 몽골인 성도들과 함께 개척한 교회로, 현재는 현지인 목회자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선교를 주도하는 교회가 되었다. 이에 몽골 역파송 열매들을 소개해보려 한다.

에르뜨네는 몽골에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형제로, 장교로서 국경 수비대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그러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한국에 온 그는 어느 장로님의 약국에서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장로

님의 가정에서 지내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몽골로 돌아갔다. 그 후로 에르뜨네는 필자가 개척한 몽골교회에 출석했다. 그는 교회에 봉사하면서 몽골 연합신학교(UBTC)에 진학했고, 전도사가 되어 교회를 섬겼다. 그러다 몽골에 YMCA가 설립됐을 때 초대 총무로 일하기도 했다.

그는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울란바타르대학교 안에 있는 제일교회의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이 교회는 몽골교회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몽골교회가 연합 집회를 갖는 곳이기도 하다. 그는 한국에 있는 몽골 교회들과도 자주 협력하였으며, 연합수련회에도 여러 번 강사로 와서 섬기기도 했다. 이 모든 일들은 에르뜨네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에르뜨네를 받아준 한 가정의 환대에서 시작되었다. 에르뜨네는 예수

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이처럼 에르뜨네는 자신을 사랑해 준 한국교회를 잊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한국교회와 협력하는 역파송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에리카는 몽골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근로자로 온 청년이다. 그는 본래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믿음이 자라면서 훌륭한 성품으로 여러 봉사에도 참여했다. 당시 한국에는 몽골 교회의 연합기관인 DMN(Diaspora Mongolian Network)이 있었는데, 에리카는 이 기관에서 봉사하기도 했다. 동시에 그는 미래에 몽골에서 자기 사업을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업종 관련 공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미래를 준비했다. 그렇게 에리카는 한국에서 기술과 자본을 준비한 후 몽골에 돌아

가자마자 패션 사업을 시작했다. 한 사람의 도움으로 사업은 번창했고 큰 회사로 발전하게 되었다. 에리카는 현재 회사의 십일조로 교회를 섬기며 몽골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특별히 몽골 영성사관학교를 섬기고 있는데, 이곳은 몽골의 크리스천들을 각 분야의 영적 리더로 훈련하는 학교이다. 이처럼 에리카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해준 한국교회를 잊지 않고 항상 고마워하며 몽골 디아스포라 선교에 헌신하고 있다.

선교 헌신자들이 감소하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이 때, 한국교회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을 양육하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역파송 선교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추진하여야 할 오늘날의 선교전략이다.



**Withee Labor Consulting**

**위디노무사사무소**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508 신산빌딩 210호

대표노무사: 이재호

### Mission Statement

전도서 3:22-4:1의 말씀을 기초로

- 1)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 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한다.
- 2) 불의한 권세로부터 학대받는 자들의 위로와 힘이 되어준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 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3:22-4:1)

### 사업(BAM)영역

1. 개별 사건수행 :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등
2. 기업 컨설팅 및 자문 : 임금·인사노무 시스템, 급여 및 4대보험 아웃소싱 등
3. 공익사업 : 국선노무사(부당해고, 체당금),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코칭 등
4. 사회공헌활동 : 청소년근로조건 보호위원, (예비)사회적기업 멘토링 등
5. 법정 의무 교육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등
6. 선교단체 & NGO 컨설팅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이재호 목사(노무사) 소개영상]





# 고신·기장·통합 총회서 다뤄진 '이주민 선교' 의제

지난 9월은 기독교 교단별 정기 총회가 여러 차례 열린 달이었다. 디아스포라신문은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여 이주민선교를 의제로 다룬 주요 교단 고신·기장·통합 교단의 총회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취재에는 정노화 선교사(고신), 이정혁 목사(기장), 유성환 목사(통합)가 도움을 주었다.



##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 ① 한국 주재 외국인선교사를 노회의 정회원으로 받아달라는 안
- ② 국내에 세워지는 이주민교회를 노회에 소속시켜 달라는 안

고신교단의 72회 총회가 9월 20~23일 부산 포도원교회에서 열렸다. 총회에서는 권오현 목사가 새로운 총회장, 김홍석 목사가 부총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임원 및 위원회 개편이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었으며, 그중 이주민선교와 관련한 몇 건의 안건을 소개하려 한다.

첫 번째 안건은 "선교사가 노회 소속 교회의 전임목사 또는 위임목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 행정위원회에서 다루어졌다. 이 사안은 일반 목회자로서 국내 체류외국인 중심의 교회를 목회하다가 올해 초 교단 선교사로 허입을 받고 선교훈련(OTC)을 거쳐 최종 파송만을 앞둔 한 선교사가 노회 소속의 교회를 계속해서 담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에 필자가 직접 위원회에 참석하

여 부가 설명을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났다. "총회헌법 제46조에 근거하여 선교사와 목사를 겸직할 수 없으며, 이 사안은 향후 한국교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고신총회세계선교회(KPM)에서 1년간 연구하여 다음 총회에 발표하기로 한다."

해당 사안은 일반 목회자로 계속 사역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이었지만, 목회자의 신분이 선교사로 바뀌게 되는 경우 지위가 어떻게 될지가 주요 논점이었다. 이에 본회의는 교단 헌법 중 "담임목사의 겸직 금지에 대한 규정"에 따라 당회장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결정에 따라 해당 사역자는 선교사로서 이주민교회 사역을 계속할 수 있지만 당회장 권한은 없어지므로, 노회에서 당회장을 새로 선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 사안이 중대한 이유는 앞으로 이주민교회가 계속 늘어난다는 점에 있다. 현재 고신교단 내에도 선교사에 의해 개척된 교회와 지역교회 내외에서 조직된 이주민교회 및 예배부가 50개를 넘어가고 있다. 만약 이 교회에 대한 목회 행정권을 올바르게 부여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여러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총회는 교단 선교부에 이를 연구해 내년 총회에 보고하라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총회의 헌법개정에 관해 논의가 이어졌다. 총회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개정해오던 헌법을 시대에 맞추어 대폭 수정하는 시점에, 이주민선교를 위한 규정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한국 주재 외국인선교사를 노회의 정회원으로 받아달라는 안:

초기 한국에 파송된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선교사는 당연히 노회의 정회원으로 활동하였고, 그들의 영향력 역시 매우 컸다. 그런데 현재 교단이나 교회에서 초청하여 이주민교회를 맡고 있는 외국인선교사(D-6 종교비자 소지자)는 대부분 아무런 멤버십을 갖지 못한 채 이주민교회 목회에만 참여하고 있다. 이는 세계교회 또는 공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론에 맞지 않는 것으로, 노회에서 이들을 받아주고 그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안이다.

- ② 국내에 세워지는 이주민교회를 노회에 소속시켜 달라는 안:

이주민의 체류 방식은 외국인근로자나 유학생 중심의 단기순환에서 장기체류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

는 이주민교회도 직분자를 세우고 조직교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이주민교회를 수용할 법적 근거가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필자가 세운 부산의 인도네시아교회도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여태 어느 교단이나 노회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 독립교회로 지내왔다. 언제까지 한국교회는 이주민교회를 무관심으로 외면하고 버려둘 것인가? 해외 선(先) 이민 국가의 사례에서 이주민교회를 포용한 교단과 배제한 교단의 성패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현재는 교단 차원에서 이주민교회를 향한 빠른 대응과 흡수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감사하게도 논의를 통해 이러한 개정안은 통과되었고, 이제 이주민교회도 노회와 교단에 소속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향후 고신교단은 이주민교회를 지역 노회에 소속시킬 수 있고, 그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나 외국인선교사도 노회 정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물론 노회가 그 교회와 사역자를 살펴 수용 가부를 결정한다). 이는 한국교회와 이주민교회가 상호 인정하고 교류하는 시대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한국 주재 외국인선교사를 교단의 목사로 인정하고 노회 정회원이 되도록 하는 것에는 신학에 대한 검증과 절차, 교회 당회권의 인정 여부에 따른 여러 논의 등이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아있다. 한 교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교회는 한마음으로 이주민교회와 한국교회가 미래 한국사회에서 함께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글 정노화 목사(군포이주와다문화센터)



하나님의 기쁨과 자람이 되는 교회

# 고현교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 11길 17-7(고현동)  
전화 : 055-635~5511, 팩스: 055-637~5513  
www.gohyun.org

**담임목사 / 박정곤**

- 부목사 / 변건식 최윤갑 조생준 강성관 방영진 김준웅 서 훈 최기천 김승운 문항기 강민환
- 기관목사 / 김성은 김옥천
- 장로 / 심종화 정해춘 강현성 유진옥 이상호 박달수 원용삼 옥영섭 천영을 신득수 이창진 정달진
- 협동장로 / 임낙연 윤정명 ▪ 무임장로 / 김진옥 김성현 ▪ 원로장로 / 옥기철 옥금석
- 은퇴장로 / 김윤탁 박광운 옥치환 이용일 강영식
- 강도사 / 하진호 ▪ 전도사 / 안복희 강영애 ▪ 사역자 / 천영숙 오정미

**2021년 고현교회 선교사 현황**

- 파송선교사 21가정 : 김경용, 윤보석, 황정대, 박진옥, 박변화, 고덕현, 윤상혁, 김 후, 김숙자, 조영태, 이철선, 김현철, 손상호, 윤 옥, 이진호, 김광선, 이임호, 김상민, 조운태, 박양제, 정보애
- 협력 후원선교사 213가정 25싱글 ▪ 협력 후원 현지인 사역자 31가정 ▪ 협력 후원 선교단체 34기관





##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 총회 선교위원회 산하 '이주민선교운동본부' 설치 운영 안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제107회 총회가 9월 20~22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새역사 70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시대의 요청에 따라 이주민선교를 위한 안건이 논의되었다. 익산노회와 군산노회가 현의한

"총회 선교위원회 산하 '이주민선교운동본부'(가칭) 설치 운영"안이 그것이다. 익산노회는 현의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외국인근로자, 중국동포, 난민, 탈북자, 유학생 등 다문화 이주민 250만여 명이 함께 살고

있다. 한국사회는 전 세계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바, 결국은 인구 부족과 노동력 부족으로 조만간 500만 명, 천만 명의 외국인 이주민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도 이민청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총회에 소속된 교회와 이주민선교 단체들은 이주민을 전도하고 양육하기 위한 교회 개척과 선교에 힘썼다. 또한 다문화 이주민 선교를 위해 상담, 복지, 정책개선, 법률제정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앞장서 왔다. 이에 총회에서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주민선교 전문가 양성 △이주민선교운동본부 설치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이주민선교신학 과목 상시개설 등 다양한 정책과 방향을 요청했다.

이주민선교는 이웃사랑과 사회선교의 실천일 뿐 아니라, 기장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향한 변화의 출발점이며, 세

계선교를 위한 도약대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 총회에서도 이주민을 위한 교단의 체계적인 선교정책과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할 때이다. 따라서 이주민 당사자들과 함께 선교과제를 실천해가기 위해서는 선교위원회 산하 이주민선교운동본부가 필요하다."

이에 본 총회는 회의를 거쳐 "총회 선교위원회 산하 '이주민선교운동본부'(가칭) 설치 운영"안을 통과하였다.

그동안 기장은 이주민선교에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지만, 총회 내 다문화 이주민을 위한 상설조직은 전무했다. 기존의 '기장이주민선교협의회'라는 선교모임은 있었으나 총회 내의 법적인 조직이 아니었다. 그러나 본 총회를 통해 선교위원회 산하에 '이주민선교운동본부'가 조직됨에 따라 다문화 이주민 선교에 다양한 열매가 맺힐 것으로 전망된다.

글 이정혁 목사(사랑의동포교회)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 다문화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안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107회 총회가 지난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경남 창원 양곡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총회에서 다뤄진 다문화와 관련한 안건은 모두 세 가지였다.

첫 번째 안건은 통합교단 헌법에 다문화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안건이었다. 국가와 사회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는 교

회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선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통합 교단은 서둘러 다문화가정에 대한 포용적 정책을 성문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이었다. 이에 총회는 헌법위원회에서 이를 1년간 연구하기로 결의하였다.

두 번째는 헌법 제27조 6항의 개정에 관한 안이다. 헌법 제27조 6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교목사는 다른 민족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송한 목사다. 또한 외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전도하는 목사도 이 규정에 준하며, 선교목사의 파송은 총회가 한다."

청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회 기구개혁으로 다문화 업무가 국내선교부에서 세계선교부로 이관되었고, 전체 인구의 5%에 육박하는 국내 체류 다문화인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기존 헌법에서 "외국에"라는 세글자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위원회에서는 개정없이 현행

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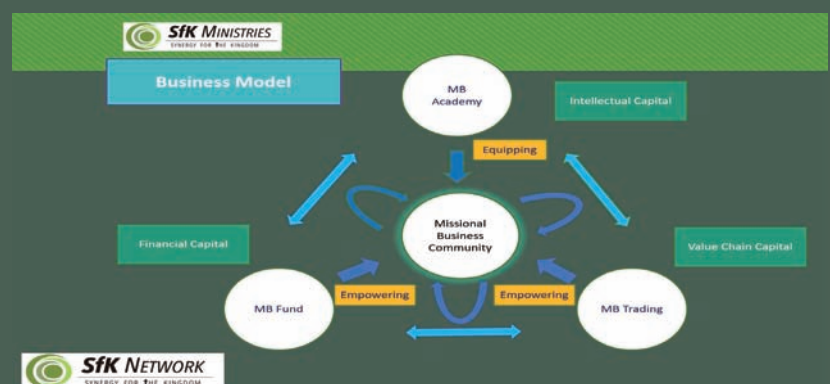
세 번째는 총회세계선교부의 다문화선교 지원에 대한 청원이었다. 안건의 내용은 총회세계선교부가 △다문화선교사역을 하고자 하는 이에게 총회세계선교부가 주관하는 '다문화선교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인선을 거친 후 국내 다문화선교사로 파송할 것 △노회세계선교부가 다문화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정책과 행정을 지원해줄 것 등이었다. 이 안건은 코로나 19 재유행 상황에 따른 회의 축소로 본회의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에서는 '해외·다문화선교처'로 기구가 통합되면서, 귀국선교사와 다문화사역 목회자를 총회차원에서 통합하고 제도화하려는 시도와 다문화에 대한 총회 헌법상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글 유성환 목사(우리교회)

## SfK (Synergy for the Kingdom) Network

- SfK (Synergy for the Kingdom) 은 미국과 한국에 사역본부를 두고 현재 16개 나라에서 사역하는 BAM 전문 선교단체입니다.
- SfK는 선교기업공동체에 속한 멤버기업들을 지속적인 훈련과 (Sustained Training), 임팩트 있는 투자와 (Impact Investment), 왕국적 유통을 (Kingdom Trade) 통해 총체적으로 섬기는 선교단체입니다.
- SfK는 6개 사역 우선순위그룹이 있는데 이주민을 섬기는 사역이 이 중에 하나입니다.
- SfK의 훈련프로그램 중에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BMT (Business Management Training) 한국어 프로그램은 8월 13일부터 16주동안 30개 동영상강의와 개인별 프로젝트, 그리고 일주일에 2시간의 실시간 토의를 통해 실시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info@sflife.org](mailto:info@sflife.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뷰] 맨프레드 콜 박사·비숍 에프레임 텐데로

지난 8월 31일~9월 1일 로잔과 세계 복음주의연맹(WEA)의 시니어 사역자인 맨프레드 콜 박사(Dr. Manfred W. Kohl)와 WEA의 글로벌 앰버서더인 비숍 에프레임 텐데로(Bishop Efraim Tendero)가 주관한 '갈릴리 무브먼트' 준비 모임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필리핀·인도네시아·호주·인도·한국 아시아 5개 나라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에 자세한 소식을 듣고자 디아스포라신문은 주최자인 두 리더를 만났다.

— '갈릴리 무브먼트'(이하 본 운동)의 목적은 무엇이며, 지금까지의 진행에 관해 설명해달라.

맨프레드 콜 박사(이하 콜): 복음주의의 기독교의 세계적인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99개 교회와 선교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교회 성장을 위한 글로벌 얼라이언스(GACX)'는 향후 10년 안에 수백만 개의 새로운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로운 교회의 형태에는 가정교회, 펠로우십 단체, 지하 교회, 디아스포라 근로자·유학생·난민 및 BaMer들의 모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세계복음주의연맹 지도부는 매일 30,000명 이상의 이슬람교도가 예수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다고



맨프레드 콜 박사  
Re-Forma 대표  
manfred@overseas.org

2020년과 2021년에 거듭 밝혀왔다. 여러모로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그러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학자 스테파네스 시게민두스 루츠(Stephanes Sigemindus Loots)는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는 마치 고속철도처럼 빠른 속도로 세워지고 있는데, 필요한 리더십 교육은 자전거로 나아가는 속도"라고 지적했다(2021).

지난 1974년, 로잔 복음주의 회의를 통해 빌리 그레함, 존 스토틀, 그리고 몇몇 교회지도자들은 복음전도에 새롭게 초점을 맞춘 영혼구령을 강조했다. 그렇게 시작된 로잔운동은 복음주의와 봉사활동에 중점을 두고 계속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나눔을 성공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현 상황에서 사역을 꾸준히 지속해나갈 일꾼들을 찾고, 훈련하고, 멘토링하고, 파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범기독교적 운동의 필요성을 인지했다. 이에 맨프레드 콜 박사(Re-Forma), 라메시 리처드 박사(RREACH), 비숍 에프레임 텐데로(WEA), 마이클 오르티스 박사(ICETE), 조 핸들리 박사(Asian Access) 5명을 포함한 교회지도자들은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 줌(Zoom) 회의 및 대면모임을 가지며 해결책을 찾았고, 그 결과로 본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 그렇다면 제시된 상황 속에서 본 운동은 무엇을 하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교회 수...리더십 교육이 시급하다"  
"갈릴리 무브먼트'는 일꾼을 찾고, 훈련하고, 파송하는 운동"

비숍 에프레임 텐데로(이하 텐데로): 우리는 본 운동을 마태복음 9:35~38 및 28:16~20의 말씀을 근거로 '갈릴리 무브먼트'라 명명하였다. 본 운동의 비전은 그리스도를 닮은 일꾼들을 영혼구령을 위해 성경으로 양육하는 것이고, 미션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그리스도 닮은 일꾼들을 속히 증식시키는 것이다. 이로써 매년 백만 명의 사역자들을 배출하는 것이 목표다. 본 운동은 그리스도 닮은 제자를 양성하는 대위임령의 완수를 위해 풍성한 방법론을 확보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예컨대 국제복음주의협회(IEA)의 개념과 더불어 성경사역 기준을 제시하는 Re-Forma 프로그램을 통해 다수의 목회자·지도자를 추가로 찾아 훈련하고, 멘토링하고, 사역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며, 일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하며 다음과 같이 7가지 영역에서 철저한 사실 조사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로, 현재 목회자·지도자 배출을 위한 공식 및 비공식적 신학 프로그램이 국가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 중이다. 둘째, 교회가 가정교회·친교 중심·성경공부 모임·온라인 펠로우십 등 어떤 형태로 존속하여 세워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셋째, 추정치와 희망수치를 넘어서 실제로 필요한 추가 목회자·지도자의 수가 대략 몇 명인지 조사하고 있다. 넷째, 서



비숍 에프레임 텐데로  
WEA 글로벌 앰버서더  
bishopef@worlddea.org

구 중심의 용어와 전통적인 사고방식의 영향에서 벗어나 리더십을 발휘할 가장 좋은 용어와 방법은 무엇인지 연구하고 있다. 다섯째, 현재 리더십 훈련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조직들을 수용하고 이들과 연합할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여섯째,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궁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운동에서 구상한 대로 새로운 리더십 발전의 물결에 어떻게 전체 기독교를 동원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있다.

— 사역자를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한다는 것인가?

콜: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세계에는 약 천개의 공식 신학교육 기관이 ICETE(International Council for Evangelical Theological Education)에 등재되어 있다. 한편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은 약 4만~10만 개의 비공식 신학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자체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렇다면 공식 교육(Formal), 비공식 교육(Non-Formal), 자체 프로그램(In-Formal)이란 무엇인가? 공식 교육은 정규 학생들이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인된 교

## MMTS

### 심화과정 4기

커리큘럼 : 단일문화권에서의 다문화 사역 / 상황화 모델과 타문화권 커뮤니케이션 / 이주민 환대와 화해사역 / 정책의 씨줄과 선교의 날줄 / BAM과 통전적 선교 / 도시선교와 유학생선교 / 타문화와 타종교 / 이주민이 말하는 효과적인 이주민 선교

문의 : 최현주 선교사 010-4688-3816 / 하소미선교사 010-3335-2449

- ✓ 이주민선교훈련학교 MMTS는 로잔 디아스포라 글로벌 클래스 룸의 공식 프로그램입니다
- ✓ 클래식 과정을 마치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훈련은 대면 및 비대면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며, 심화과정 수료 후 IC(국제문화교류지도사) 시험 자격이 주어집니다.

- ✓ 훈련기간 **2022. 10. 17 ~ 12. 5**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 ✓ 장 소 \_ 안양 새중앙교회 선교관
- ✓ 훈련비 \_ 100,000원
- ✓ 입금계좌 \_ 464-910007-22804 위디선교회

<https://forms.gle/RUU18rDbdkuB1tN7>







▲ 8월 31일~9월 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된 '갈릴리 무브먼트' 준비 모임

육기관에서 학위와 교육을 제공받는 것이다. 비공식 교육은 성경 교육·교회 기반 프로그램·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수료증 또는 비학점 학위를 수여하는 다양한 기관의 교육을 의미한다. 자체 프로그램은 관찰·실습·인턴십 등을 통해 단기 또는 비정기로 이루어지는 비공식 교육을 의미한다.

본 운동은 이 모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포괄한 각 국가의 기독교 주요 프로그램·기관·활동을 조사하고 이를 탑재하여, 잠재적 일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을 동원하는 플랫폼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관명 △졸업생 총수 △연간 평균 등록 학생 수 △학생들의 평균 연령 △성별 비율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교육 유형 설명(예: 전달, 방법론, 관련 중점 사항 등) △담당자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국가 코드 포함) △웹사이트 주소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국가 등 기본적인 것을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다. 잠재적 사역자들의 올바른 교육 선택을 위해, 직접 방문과 조사를 통해 사실에 의거한 결과와 통계만을 제공한다. 이것이 '갈릴리 무브먼트'이다.

### — 보안상의 문제와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

텐데로: 연구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적절한 백업을 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계속 연구 중이다. 현재는 세계복음주의 연맹과 Re-Forma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로 했다. 앞으로 더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기술의 탑재와 섬세한 관리를 최우선으로 둘 것이다. 또한 본 운동과 각 훈련기관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접촉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을지도 고민하고 있다. 세계 기독교 전체의 플랫폼이 될 방안에 대해 기도하고 준비 중이다.

### — 본 운동의 구성원과 역할을 소개해달라.

쿨: 모든 실행 팀 구성원은 예산 수립과 기금 모금에 관여할 책임이 있다. 집행 팀의 각 구성원은 본 운동을 위한 기부자와 재단의 기금을 확보해야 한다. 임명된 재무위원회가 이에 감독을 맡고 경영진이 주관한다. '갈릴리 무브먼트'는 국제 이사회와 경영진

## "사역자에게 훈련 프로그램 정보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 펼칠 것" "목회자·지도자 양성하는 주요 기관 리더들 초대할 계획"

에 의해 운영된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15명의 리더십 팀이 구성되어있고, 여러 위원회가 꾸려져 있다. 앞으로 구성원은 최대 300명까지 세워 함께할 예정이다. 특히 다수의 목회자·지도자를 양성하는 주요 기관의 리더를 초대할 계획이다. 또한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용기 있고, 겸손하고, 재능과 사명감이 있는 젊은 지도자 50명을 팀으로 구성할 것이다.

###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텐데로: 이번 마닐라 모임을 통해 필리핀·인도네시아·호주·인도·한국 아시아 5개 나라가 본 운동의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제 다른 나라도 동원하는 일을 계속하여야 한다. 지역별로 구성된 실행 팀은 줌(Zoom) 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만나며, 모임은 10월 12일과 12월 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3년 2월 말에는 대면으로 만

날 것이며, 이때의 대면 모임은 약 300명의 규모로 이스라엘 갈릴리에서 글로벌 회의 준비 및 기도회를 가지려고 한다. 회원국은 1년에 두 번 모임을 가져야 하며, 글로벌 컨퍼런스는 2024년 또는 2025년에 계획 중이다.

쿨: 오는 11월 10일에 본 운동의 한국위원회 설립과 설명회가 안양 새중앙교회에서 열린다. 교회 성장과 세계 선교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는 한국이다. 그만큼 한국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구원에 지대한 열정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 세계 열방 곳곳에서 세워지는 교회와 이를 이끌 지도자의 교육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일을 '갈릴리 무브먼트'로 이루고자 할 때 한국교회 동역자들의 참여로 큰 도전과 힘을 얻는다. 한국교회와 연합하게 됨에 가슴이 벅차다. 한국교회의 부흥을 함께 축복한다.

▼ '갈릴리 무브먼트' 준비 모임에 참석한 필리핀·인도네시아·호주·인도·한국 아시아 5개 나라 대표들



**D'LIGHT**  
법무법인 디라이트

# 법무법인 디라이트

전문성과 혁신으로 산업의 Frontier에서 고객을 도우며 사회변화를 위하여 Shared Value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과 사업 전반에 걸쳐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글로벌한 업무 능력과 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고객이 새로운 성장과 혁신에 필요한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5층(서초2동, 한화생명보험빌딩)  
TEL 02.2051.1870 FAX 02.2051.1877 E-MAIL info@dightlaw.com  
www.dightlaw.com

**산업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소송과 자문 영역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기업들이 어디에서나 경쟁력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ICT/AI | 헬스케어 | 블록체인 | 핀테크 | 엔터테인먼트 | 모빌리티 | 이커머스 | 에너지/환경 | 농업/F&B

**법률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법무, Technology M&A | 지적재산권 | 인사·형사·행정 등 각종소송 | 스타트업 / VC | 개인정보/빅데이터 | 부동산/건설 | 규제샌드박스 | 중국 | 사내법무지원 서비스

**공익활동** 공익(사회적가치)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문화이자 목표입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모든 구성원은 공익활동을 업무의 일부로 하며,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공익활동에서 사용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기술 / 디자인공모전(D-Tech) | 파트너기업과 함께하는 Time Bank 프로젝트 | 공익인권단체법·제도개선 지원사업 | 1% for the Planet(환경) | 각종 공익·인권 소송



# 꿈을 해석해주는 노예 디아스포라 요셉

Gardner Webb University  
선교학 교수,  
위디국제선교회 국제이사



Dr. Tereso Casino

글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창세기 40:1~8)

꿈꾸는 자 요셉이 노예 디아스포라로서 겪은 경험은 비자발적으로 고향을 떠나 노예살이를 할 수밖에 없던 이들에게 교훈과 위로를 준다. 당시 자신의 가족들에게 버려지거나 고리가 끊어진 노예들은 일말의 기대감도 품지 못한 채 살아야 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잊히지 않고 역사에 남기를 원했다. 비록 요셉은 사랑하는 이들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는 고난을 통해 일어섰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감옥에서 사면을 받고, 유능한 신하로서 인정받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은 것이다.

## 디아스포라 요셉에 대한 고찰

만약 요셉이 그저 노예의 삶에 순응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고, 그 여파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다. 요셉은 한때 그 집에서 신뢰를 얻고 가사의 책임까지 도맡았지만,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온갖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죄수들이 모여있는 지하감옥에 내던져졌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어둡고 깊숙한 지하감옥에서의 삶은 요셉이 도리어 밝은 미래로 나아갈 전환점이 되었다.

요셉이 지하감옥에 던져졌을 때, 아마도 그의 트라우마는 반복됐을 것이다. 과거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로 빠뜨린 것처럼, 주인 보디발 역시 요셉을 지하감옥으로 밀어 넣었기 때문이다. 요셉은 컴컴하고 아득한 지하에서 일반인이라면 쉬이 경험하지 못할 공포를 겪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충격적인 경험은 요셉을 성공적인 미래로 이끌었다. 요셉이 성공의 정점에 도달하는데 그의 깊숙하고 어두운 경험이 오히려 디딤돌이 된 것이다.

사실 감옥살이는 요셉이 생의 여정에서 겪은 노예살이 중 최악의 형태나 다름없었다. 감옥에서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사람들과의 관계망이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곳은 일반 범죄자들이 수감되는 일반 감옥이 아니었다. "왕의 죄수"들이 수감된 고급 보안 시설이었다(창 39:20). 요셉이 갇힌 지하감옥은 공동체 및 사회와 강력히 단절되고, 자그마한 소망도 삼켜지는 곳이었다. 요셉 역시 다른 죄수들과 함께 고립과 포기의 감정을 공유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그의 곤

경에 대한 묘사는 고통스럽고 심오하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창 40:15)

## 오늘날 선교하는 교회를 위한 통찰

오늘날의 포스트모던 사회는 꿈을 해석하는 일과 거리가 멀지만, 당시 요셉의 삶에서 해몽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요셉이 어릴 적 고향에서는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요셉이 곧 두 번의 꿈에 해석을 내린 것은 오히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 해석은 결국 요셉을 곤경에 빠뜨렸다.

우리는 요셉의 투옥 경험과 그가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하였던 경험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먼저, 투옥 경험은 노예 디아스포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게 만든다. 요셉이 디아스포라 노예로서 시련을 겪는 동안, 하나님의 존재는 일관되게 드러났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다.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자각은 그에게 힘, 자신감, 그리고 방향성의 원천이 되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라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창 39:20~21)

감옥은 요셉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환경이 되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간수장에게 눈에 드는 은혜"를 주셨다(창 39:21). 그 결과 요셉은 간수장에게 신뢰를 얻고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요셉은 모든 죄수를 관리하였고 시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책임졌다. 감옥에서의 경험

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이 되었고,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창 39:23).

최악의 상황에서도 젊은 디아스포라 노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고히 지켰다. 또한 그는 자신의 믿음을 실용적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해몽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예컨대 떡 굽는 관원장이 죽으리란 걸 알게 된 요셉은 그 사실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알려주었다. 동시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는 자신을 기억하여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요셉의 해몽대로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을 복귀시켰을 때, 요셉의 처음 부탁은 잊혔지만 결국 요셉의 소원대로 이루어졌다. 그는 정당함을 입증하고 감옥에서 풀려났다.

요셉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젠가 그가 완전하게 되리라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거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에 대해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꺼내주시리란 것을 단박에 감지했을 것이다. 꿈을 해석해보겠다는 요셉의 말속에 그만의 유리하고 자신만만한 태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창 40:8)

▶ (연재)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 산소망교회

이주민선교
온가족예배

유관기관 위디국제선교회, (사)피드더칠드런 한국위원회  
명학마을 작은도시관, 보아스의발

산소망교회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www.sansomang.org  
031-468-9191





# 청년 선교사를 양성하는 전주비전대 국제협력기술과



전주비전대학교  
국제협력기술과 학과장·교목실장

글

김미선 교수

저는 한 선교단체에서 8년의 사역 경험과 선교사 훈련 준비를 마치고 대만 지부의 책임자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막 대만에 도착했을 당시 저는 30대 초반의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신도라는 편견, 독신의 여성교사라는 편견을 동시에 마주해야 했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저와 저의 섬김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성장한 한편, 오히려 한국인 선교사님 중에서 평신도 사역자라는 것대로 저를 낮추어 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귀국 이후, 저는 전주비전대학교에서 전문인선교사를 양성하고자 '국제협력기술과' 개설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선교사 소양을 갖추도록 선교교육과 영성훈련을 받게 하고, 대학의 특성을 살려 1인 1기술전공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에 저는 발로 뛰며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벤치마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한 전문가는 "전문인선교사는 대학원까지 나와야 진짜 'professional'한 전문인이 되는 것이기에 2년의 과정을 통해서는 전문인사역자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본교 내에서 이런 학과는 있을 수 없다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영역에 따라 석사, 박사까지 마쳐야만 전문인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기술전문인도 2년 만으로 아주 숙달된 전문인이 되기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과정이 없는 전문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전주비전대학교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을 일으키시고 우리 대학을 선교하는 대학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일하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지금의 국제협력기술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국제협력기술과는 올해로 10주년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의 25개 국가에서 다양한 선교단체와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 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이들은 교육과정을 마치고 고국에 역(逆)파송 선교사로, 각 대륙에 선교사로 파송 받았습니다. 2022년 올해까지 총 214명의 졸업생 중 약 60%의 학생들이 선교단체를 통한 파송, 교회사역, 이주민사역, BAM, 기독교 NGO 등 다양한 선교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2년 공부해서 아펜젤러, 서서평 같은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선교사라면 교육과 훈련을 많이 받고 목회자로 안수받는 등 자격을 얻는 것이 보편적이고 바람직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완전한 선교사란 아직 나타난 적이 없고, 완전한 가까운 기준을 세운다는 것 역시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2년이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전도자의 마음을 토대로 삶의 방향이 세워진다면, 그 삶은 평생 하나



캄보디아 - 씨썬씨웃



레바논 - 다니엘

▲ 국제협력기술과 졸업생들이 보내온 선교현장 사진

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는 데 드리게 될 것입니다.

청년 선교사! 가슴 떨리는 단어입니다. 올해 2월 졸업을 하고 고국 캄보디아, 몽골로 역(逆)파송된 외국인 졸업생들, 그리고 레바논과 태국으로 파송된 한국인 학생들이 선교현장 소식과 기도제목을 담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데 충성된 자, 순전한 자인 이들을 기뻐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는 필요, 가치, 기준, 개념, 삶의 방식 등 많은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선교도 선교의 패러다임과 전략에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

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 요청과 전환 가운데에도, 교계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여전히 전통이 잣대가 되어 현대의 선교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교!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선교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교육, 선교하는 대학으로써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그분의 영광과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To-Plate

천혜지역 호주 먹거리는 우리의 건강을 지원하며,  
식탁을 풍성하게 합니다.  
전 세계 가족들을 더욱 행복하게 하는 To-Plate는  
한국에서도 직접 구매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문의 010-6342-0691



At To-Plate, you will learn unique stories of passionate Australian producers and be able to buy their artisan food & beverage products via our online grocery store. The best part? We'll deliver the treats to your door.



# 지금은 세계화, 인구 이주, 디아스포라 시대



글 김성훈 선교사

김성훈 선교사는 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 선교사로 1992년에 영국으로 파송을 받아 2003년 이란의 아제리 문자(튀르크어족)로 신약성경 번역을 완료했고, 2013년 신구약 성경을 완역하여 출판하였다. 그는 2010년 한인디아스포라포럼(KDF), 2011년 한디포 미주포럼 등을 거치면서 한인디아스포라연구소(KRID)를 설립하였고,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한민족 선교의 주요사례를 수집하고 연구과제를 모아 첫 영문서적인 〈Korean Diaspora and Christian Mission〉을 출간하였다. 또한, 지난 수년 동안 로잔디아스포라 운동을 통해 디아스포라와 관련하여 다양한 전략적인 일들에 헌신해왔다.

김성훈 선교사의 최근 저서 〈마지막 시대의 모략: 디아스포라〉에는 그가 선교사, 학사, 디아스포라로서 살아온 30년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는 본서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해 생생하게 증언한다. 디아스포라신문은 매월 〈마지막 시대의 모략: 디아스포라〉 본문의 일부를 게재하며, 10월 호에는 본서의 1장 '지금은 세계화, 인구 이주, 디아스포라 시대'를 담았다.

오늘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세계화(Globalization), 인구 이주와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회학적인 표현들이 실제로 와닿지 않고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세기 전만 해도 한민족은 거의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외부와 단절된 '은자의 나

라'로 알려졌었다. 한국이 해외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자유로운 해외진출이 시작된 원년은 서울 올림픽이 시작된 1988년으로 볼 수 있다. 이후에 '아시아의 용(Asia's Next Giant)'으로 부상한 한국은 조금씩 여행 자유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 성장을 통해 소위 '서양 문물'을 경험하는 개명(開明)의 시대를 열었다. 전위대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은 파독 광부와 간호사, 멕시코의 에네켄 농장 노동자, 하와이의 사탕수수 노동자, 70년대 이후 중동 근로자 등 여러 사례로 보았듯이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비자발적인 이주 노동이 행해졌고 한국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 국가의 고립에서 비롯된 타성인지는 몰라도 국제적 감각이나 민감성은 문화적 관성(Cultural Inertia)으로 인해 그 변화의 프로세스가 매우 더딘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현재 132만 명(한국통계청 2019)에 달하였다는 통계가 말해주듯, 한국은 단일국가에서 벗어나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한편, 한국 문화(K-Culture)가 급속하게 전파되고 정치외교적 위상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계화와 인구 이동과 디아스포라(Diaspora)'라는 관점의 이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 첫 번째로 세계화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 세계화(Globalization)

'세계화'란 단어는 1990년대 냉전시대 이후 전 세계 국가들이 서로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려고 하던 시

기에 파생되었으며, 물류·서비스·기술·투자 흐름·정보 등이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현상을 통틀어 일컫는다. 당시 세계화를 주도하는 국가는 미국이었다. 미국은 "세계화가 번영과 평화의 도구(PIIE 2019)"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2차대전 이후에 보다는 나쁜 세계를 건설한다는 기치로 국제통화기금(IMF), 국제연합(UN), 세계은행(WB), 세계무역기구(WTO),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창설하기에 이르렀다.

초기 개념의 '세계화'는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상품을 거래하거나 다양하고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표방해왔지만, 1990년을 기점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빈부격차가 드러나게 되어 그 명암이 서서히 부각되었다. 이에 대한 반성이 고조되면서, 조셉 슈티글리츠(Joseph E. Stiglitz)는 한편 "세계화가 근본적으로 물류, 자본, 사람들의 이동을 통한 긴밀한 국가 간 통합을 의도하기는 하지만(Stiglitz 2003), 국가 간 지식교류, 문화 통섭, 세계시민사회 형성, 그리고 세계 환경운동 같은 연대를 지향(Stiglitz 2007)하는 기류들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세계화가 가져온 긍정적인 측면은 저개발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는 점에 있다. 또한, 독재와 인권남용 등의 영역에서도 국제적 연대를 통해 통합에 일조했다. 한편 부정적인 측면은 특히 아프리카에서 근대 식민지를 통한 착취로 선진국과 저개발국의 격차를 벌리고 불공정을 가속화했으며, 결국에는 기회와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위기를 심는 모순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세계화로 인해 우리의 삶에 피부로 와닿는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소득의 불공정성이다. 이러한 불공정은 소수 불이익 집단의 공적인 저항으로 이어지며, 이에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국가혼란을 야기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자유무역을 허용함으로써 생기는 갈등도 존재한다. 자유무역을 통해 수입은 늘어나지만 수혜자는 정작 '엘리트'에 집중되고, 공정한 분배를 받지 못하는 소수들은 저항함으로써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결국 경제 영역에만 치우친 세계화 문제는 사회문화적 갈등과 더불어 정치적인 부담을 국가에 안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문화 영역에서도 세계화는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무는 인터넷·팩스·위성·수신기·케이블 TV 등의 기술을 통해 세계문화의 획일화를 조장하고 △세계 거대 엔터테인먼트 자본들이 서구 중심의 자본주의로 무장한 가치를 문화의 기준으로 삼으려 하는 역기능이 뒤따른다.

결론적으로 세계화 문제는 경제 영역을 넘어 그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도전을 함께 풀어나가는 안목이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사회정의의 △공공 분야의 제도적 장치 마련 △노동 고용창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과의 연대를 위한 노력 △이주노동자 이슈 등이 세계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 인구 이주와 디아스포라 시대

세계화 현상은 필연적으로 인구의 이주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디



10년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 말씀대로 / 기도대로 / 사명대로

## 이루어지는 살롬교회!!

- 세상의 소금이 되는 쓰임받는 교회
- 거룩하신 주님을 섬기는 교회
-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하는 교회
-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Shalom**  
CHURCH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 순복음살롬교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랑북로2길 11 / 031-410-9420  
담임목사 이재순 / 부목사 조사무엘  
전도사 이미영, 이길순 / 캄보디아선교사 이창우, 김여정  
유관기관 : 나눔무료식당, GGVS기독교학교

주일예배 1부 8:30 / 2부 11:00 / 3부 14:00 / 수요일예배 19:30 / 목요일복성회 20:30 / 새벽기도회 월~목 05:00  
실로아예배(유년부, 초등부) 주일 11:00 / 아가페학생회 토요일 12:00 / 청년부 토요일 18:00





디아스포라' 현상과 맞물려 있다. 세계 경제를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16세기 지리상의 발견과 동방 무역을 통해 유럽의 경제가 팽창하면서 거대자본들이 형성되었고,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근대 세계 체제가 점차 구축되었다. 지난 세기 동안 견고해 보이던 경제 체제는 1930년대 대공황을 맞이하면서 한 때 세계화의 진전이 멈추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복구 동력과 1960년대 식민지의 해체(post-colonialism)를 통해 자본주의 및 다국적 산업 체제의 급성장이 일어났다. 그 결과 세계질서가 재편되었고 새로운 메가 트렌드로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인구의 이동은 20세기를 전후하여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2012년에는 세계 경제의 중심축인 미국의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의 주재로 세계 디아스포라 포럼이 개최되었다. '보상을 통한 진전(Moving Forward by Giving Back)'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자국의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 각층에 기여해주길 도전했고, 디아스포라 공동체 및 사회적 기업 등에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특히 포럼에서 주목한 이슈는 △아프리카, 이란 등지에서 인구의 이동으로 인한 기술 유출(전문직이나 숙련 노동력의 이탈)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반복적인 단기 이주의 증가 △인구이동이 해당국가에 자연스러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 △이주민의 본국 송금이 저개발국가의 빈곤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주는 점 등이 있다.

세계은행의 2020년 세계 이주민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8100만 명이 이주했고 이는 전체 세계 인구의 3.6%를 차지한다. 전체 이주자 중 이주노동자는 약 1억 690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이동 중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이들은 약 3900명에 달했다.

최근 인구의 이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들(World Bank, 2007)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세계화의 가속으로 시장이 국가를 넘어 세계로 확대
- 선진국의 고도성장
- 세계 무역의 증가
- 원조의 증가와 해외 직접 투자로 인한 개발도상국 수혜

- 기술의 신속한 전이와 획득, 급속한 세계 통합

이처럼 세계적으로 활발한 이주현상에 맞물려 한반도의 인구 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자. 2019년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한국 재외동포의 현황은 약 749만 명(2018년 말 기준)으로 집계되었다. 재외동포를 지역별로 보면 동북아시아가 약 328만 명, 북미 278만 명, 유럽 68만 명, 남아시아 태평양 지역 59만 명, 중남미 10만 명, 중동 2만 명, 아프리카 1만 명 순이다. 국가 별로는 미국(254만 명)이 단연 앞서고, 그 다음으로 중국(246만 명), 일본(82만 명), 캐나다(24만 명), 우즈베키스탄(17만 명), 베트남(17만 명) 순으로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근대 한반도 역사 속에서 초기 한인들은 주로 중국·미국·일본·구소련으로 이동했고, 대부분 타의에 의한 비자발적 이주였다. 대규모 이동이 일어난 첫 단계는 1860년대부터 1910년 한일합병 시기로, 한인들은 일본의 병탄과 가난, 기근으로 인해 중국·연해주·러시아·하와이 등지로 망명하였다. 두 번째

이동은 1910년부터 1945년 해방 시기까지 강제노역으로 인해 일본으로 가장 많이 이주했으며, 한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러시아·미국 등지로 이주했다. 세 번째 이동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한 해인 1945년부터 1962년 사이 정부의 새로운 이민정책에 따라 다른 나라로 자유로운 이주가 허용되던 시기에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1962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이주정책에 따라 대규모 이주 물결이 남미·서유럽·중동·북미로 확대되었다. 특히 미주의 경우 1985년경 10만 명, 1990년에 25만 명, 1999년에는 70만 명으로 증가하여 지난 15년 동안 무려 7배가 증가했다.

윤인진 교수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2005). 첫째로, 해외 한인들은 정착 초기 시절에 불이익과 인종차별을 경험했지만 한인들 특유의 상승기질(upward mobility)과 강한 노동력으로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해왔다. 둘째로, 그들은 본능적으로 인종차별과 불이익이 심한 노동 영역을 피해 비교적 덜 부담되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했다. 셋째, 1세대 이민자 대다수가 중소 규모의 상업과 직장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교육에 투자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한인들은 기회의 사다리를 타기 위해 거주지의 문화에 적응하는 한편, 강력한 민족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다.

▶ (연재)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 Jewish Voice Ministries International, Korea

우리는 예수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16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세계 여러나라에 흩어져 있지만, JvMI Korea는 특히 에티오피아와 짐바브웨를 주목합니다. 복음을 담아 구제하며 기동성이 빠른 이동클리닉을 통해 치과, 안과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육체적 필요를 지원하며 예수의 사랑과 소망을 나눕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www.jvmikorea.org



## 서울권역

## 나섬교회(나섬공동체)

서울시 광진구 광장로1

**T** 02-446-4195**H** www.nasom.or.kr

영어권예배 주일 오후 2:00

서남아권예배 주일 오후 1:30

이슬람권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권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권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권예배 주일 오후 2:00

## 남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19길 36 (반포동)

**T** 02-2023-5600**H** www.namseoul.org

북한민예배 주일 오전 10:4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

어린이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0:30

## 네팔노동자교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26-1

**T** 070-8222-8345**H**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 높은뜻광성교회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6 순총빌딩 5층(사무국)

**T** 02-717-5025**H** www.gwks.org

다문화가정예배 주일 오전 11:00

## 동신교회

서울시 종로구 종로44길 43(창신동)

**T** 02-764-1181-4**H** www.dongshin.or.kr

몽골인예배 주일 오후 1:30

중국인예배 주일 오후 1:30

이란인예배 주일 오후 1:30

베트남인예배 주일 오후 1:30

## 동일교회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35길 21

**T** 02-2208-0811-3**H** www.dongilch.com

몽골부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부예배 주일 오후 1:30

필리핀부예배 주일 오후 1:30

## 새오름교회

서울시 마포구 연희로 1길 48 미래오피스 301호

**T** 010-3512-6701**H**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 생수가흐르는숲교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52 2층 the cafe HEIMz

**T** 010-8637-0333**H**  
글로벌예배(오전) 주일 오전 11:00  
글로벌예배(오후) 주일 오후 4:00

다문화소그룹 주일 오후 2:00

## 서울대 글로벌비전센터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로4 아놀노타워 B1

**T** 010-2875-9639**H**  
글로벌(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아프리카예배 주일 오후 5:30

세종한국어교실 주중

## 서울네이션즈교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17번지 3층

**T** 02-793-0193**H** www.gfm153.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 오륜교회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35

**T** 02-485-4004**H** www.oryun.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벵갈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 다하나국제교회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88-39

**T** 02-2269-0654**H**  
다하나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토요일 오후 6: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12:30

## ISF(국제학생회)

서울 성동구 무학로2길 10길 6층

**T** 02-2051-7040**H** www.isfkorea.orgsangdang.org

## 수도권역

## 분당매일교회 살롬하우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보로 107번길 티엘산업

**T** 010-3951-8680**H**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후 3:30

## 새중앙교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301

**T** 031-425-3000**H** www.sja.or.kr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어린이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어린이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3:00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0:30

인도네시아예배 주일 오전 10:30

북한선교예배 주일 오전 10:30

중국동포예배 주일 오전 10:30

몽골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예배 주일 오전 10:30

## 수원중앙침례교회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08

**T** 031-229-9000**H** www.central.or.kr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3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1:30

새터민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 순복음열방선교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412 2층

**T** 032-874-8291**H**  
다문화통합예배 주일 오전 1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30

다문화주일학교 주일 오후 1:00

## 승리다문화교회(승리교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송산로 486-30

**T** 031-911-2289**H** www.slmcc.or.kr

일요일예배(성인) 주일 오전 11:50

다문화교회학교예배 주일 오전 11:50

캄보디아공동체 주일 오전 11:00

베트남공동체 주일 오후 2:00

다문화가정공동체 주일 오후 2:00

몽골공동체 주일 오후 2:00

## 시흥네팔은혜교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96-7 401호

**T** 010-9463-5857**H**  
주일예배 주일 오후 12:00

## 아시아인마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5 한양빌딩 1층

**T** 031-753-0688**H** www.ainma.org

대예배 주일 오전 11:00

아침 특별기도회 주일 오전 10:00

## 안디옥인도네시아선교회(안산지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 213-1 4층

**T** 031-492-2645**H** www.aicindonesia.co.kr/

인도네시아인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수요일 저녁 8:00

토요일예배 토요일 저녁 8:00

## 안산동산교회(WM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7(WM센터)

**T** 031-400-1111**H** www.d21.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주일학교예배 주일 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 이주민 예배

※ 이주민예배 안내는 현재 서울권, 수도권(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 경상권(대구/울산/부산), 전라권(광주) 다섯 권역으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 송우벗사랑베트남교회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92 안경박사 3층

**T** 070-4416-5830**H** www.kvim.hompee.com

러시아권예배 주일 오후 1:30

베트남예배 주일 오후 5:00

## 안산제일교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1

**T** 031-485-0955**H** www.ansan1.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0:00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0:00

## 안양제일교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40번길 11-10

**T** 031-449-1195**H** www.anyangjeil.org

영어통역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 암미선교회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36번길 24

**T** 031-571-6554**H**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토요일기도회

토요일 오후 7:00

## 열린교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T** 1661-4372**H** www.yullin.org

중국팀예배 주일 오전 11:30

## 열린열방선교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1길 31

**T** 031-506-6044**H**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후 1:00  
태국인예배 주일 오후 2:00

## 예수향남교회

경기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117

**T** 031-354-9221**H** www.jesushn.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 예승센터

경기도 화성시 남양시정로 38-4 무지개아파트 505호

**T** 010-5541-4891**H**  
네팔어예배주일 오전 10:30  
네팔어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기도회 토요일 오후 9:00

## 새생명태국인교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15 지하1층

**T** 070-7019-7792**H**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 위대국제선교회

경기 안양시 만안구 명화로 66-16

**T** 031-385-4680**H** www.withee.org

카메룬예배 주일 오후 4:00

중보기도회 토요일 오전 10:00

## 울프렌즈교회

경기도 광주시 수하길11번길 2

**T** 031-762-2679**H** www.allfriends.kr

캄보디아토요일예배 토요일 오후 8:00

캄보디아주일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9:00

다문화토요일예배 토요일 오후 1:00

## 이주민월드비전센터

경기 동두천시 생연로 200

**T** 010-3198-9329**H**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다국적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1:00

아프리카예배 주일 오후 3:00

## 인천순복음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화로 458

**T** 032-424-8511**H** www.hyo7.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2:30, 5: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 주안장로교회

부평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13(산곡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74번길 20(주안동)

**T** 032-527-1009**H** www.juan.ok.kr

새터민 햇빛공동체 주일 오후 12:30

베트남주안교회 주일 오전 10:00

네팔주안교회 주일 오후 12:0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미얀마어예배 주일 오후 2:30

파키스탄어예배 주일 오후 4:00

## 하베스트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97-1 2층

**T** 010-2025-7123**H**  
다민족예배 주일 오전 11:30



# 안내 접수

담당 이진아 기자  
izina@hanmail.net

강원이나 제주 등 빠진 지역의 교회는 본지로 신청해 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정규(일반)예배를 제외한 이주민 모임만 안내해드립니다.

## 거룩한빛광성교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경의로 956

**T** 031-918-9100

**H** www.kwangsung.org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1:3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2: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 꿈의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31

**T** 031-409-9191

**H** www.dream10.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 광탄열방교회(네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해음로 1091 2층

**T** 010-9002-0033

**H**

네팔어주일예배 주일 오전 10:30

네팔어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8:00

네팔어금요예배 금요일 오후 8:00

## 순복음생명수교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64 2층

**T** 010-9948-8212

**H**

러시아어 주일예배 오전 9:00 / 11:00

러시아어 주일학교 오전 11:00

러시아어 금요기도회 오후 9:00  
\*(첫째 주 제외)

## 할렐루야교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68

**T** 031-780-9500

**H** www.hcc.or.kr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어린이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 경상권역

### 김해교회

경남 김해시 가락로 117

**T** 055-333-6321

**H** www.gloria.or.kr

필리핀예배 주일 오후 2:00

### 대구동신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4길 39(만촌동)

**T** 053-756-1701

**H** www.ds-ch.org

성인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20

베트남예배 주일 오후 12:00

러시아예배 주일 오후 1:00

중국어유치부 주일 오후 12:00

영어유년부 주일 오후 2:00

## 고현교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11길 17-7

**T** 055-635-5511

**H** www.gohyun.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1:1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 대청글로벌미션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83 동행빌딩 5층

**T** 051-515-0191

**H** www.dgmc.co.kr

중국어유학생예배 주일 오후 5:00

## 대영교회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80

**T** 053-756-1701

**H** www.daeyoung.org

캄보디아예배 주일 오전 11:15

탈북민부 주일 오후 12:30

외국인한글학교 토요일 저녁 8:00,  
주일 오후 1:00

## 섬김의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대첩로 106(옥포동)

**T** 055-688-0691

**H** www.sumgim.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 시타센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91 서린빌딩 5층

**T** 010-9747-0316

**H** ulinch0229.vixsite.com

한국어예배 주일 오전 10: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12:30

한국어교실 주일 오후 12: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30

## 하이웃 센터(Hi-Neighbor Center)

경북 경주시 한빛길 23 3층

**T** 054-772-0691

**H**

한국어예배 주일 오전 9:30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00

금요모임 금요일 오후 6:30

## 호산나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6로 2 (명지동)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1405번길 26 (하단동)

**T** 051-209-0191

**H** www.hosanna21.com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30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 구미제일교회

경북 구미시 임수로 80

**T** 054-471-8650

**H** www.gumijeil.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3: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3: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 울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푸름길 10

**T** 052-242-1171

**H** www.upcweb.net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00

## 울산베트남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89

**T** 010-7493-0080

**H** www.vfu.co.kr

토요일예배 토요일 오후 7:00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 호남권역

### 갯소리장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60번길 22

**T** 010-3633-0864

**H** www.godpleasing.modoo.at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다문화예배 주일 오후 1:30

### 무지개다문화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중앙로 59-10 3층

**T** 010-3604-8139

**H**

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0:10 / 11:30

### 월광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31번길 7

**T** 062-375-0400

**H** www.wemwem.org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9:30

필리핀예배 주일 오전 11:30

### 장동교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87

**T** 063-211-1597

**H** www.jangdong.org

모자이크예배 주일 오전 11:00,

주일 오후 2:30,

수요일 오후 7:30

### 전주안디옥교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65

**T** 063-274-3228

**H** www.antiochia.org

중국어예배주일 주일 오후 12:5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 목포주안교회

전남 목포시 청호로 159(북항동)

**T** 061-272-4908

**H** www.mokpojuan.com

외국인예배 주일 오후 1:30

## 목포사랑의교회

전남 목포시 옥암동 복산길 6번길 7

**T** 061-284-8899

**H** www.ds-ch.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7:00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7: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3: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7:00

## 충청권역

### 상당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51

**T** 043-288-2203

**H** www.sangdang.org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예배(선교기도회) 주일 오후 1:3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9:00,  
오후 12:00

## 신창비전외국인교회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54

**T** 010-2287-9643

**H** facebook.com

/groups/1616235851794814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청소년예배 주일 오후 2:00

아침기도회 월~금 오전 6: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전 10: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성경공부 토요일 오후 7:00

## 하늘중앙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21(백석동)

**T** 041-558-9191

**H** www.heavencc.net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스리랑카어예배 주일 오전 11:00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인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미얀마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아프리카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이주민예배 안내를 계속 업데이트 중입니다.  
교회의 문의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여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19~20)



국내 이주민 선교를 위한 **디아스포라신문**

**디아스포라신문**

발행·편집인 문창선 목사

안양 라00130 (정기간행물등록번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문의: 010-7418-0191

이메일: witheeman@gmail.com

홈페이지: www.diasporanews.kr

구독 및 광고문의를 환영합니다




**제21회 한국선교지도자포럼**  
 The 21st Korean Mission Leaders' Forum  
**2022**  
 날짜 | 10.31월 오후 2시 ~ 11.2수  
 장소 | 가평 필그림하우스  
 선교 메시지 | 최성은 목사 (분당지구촌교회)  
 양춘길 목사 (필그림선교회)  
 주제 | ① 교회와 선교단체의 시너지  
 ② 교회중심의 선교 운동  
 ③ 이주민과 글로벌 네트워크  
 ④ 다음세대(2030세대)의 동원



주관 |  **한국세계선교협의회**  
 The Korea World Missions Association  
 주최 |  **한국세계선교협의회**  
 The Korea World Missions Association  
 후원 |  **한국세계선교협의회**  
 The Korea World Missions Association

▲ KWMA 주관 제21회 한국선교지도자포럼 (10월 31일, 가평 필그림하우스)

▼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안산 새생명태국인교회 태국인 성도들 (3면 참조)



▼ 부천몽골교회 몽골 성도 모임 (5면 참조)



▼ 울산 지역 다민족 다문화를 위한 선교대회&amp;세미나 개최 (5면 참조)




**Korea Immigrants Missions Association**  
**Kima 포럼**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

**2022. 11. 7(월) - 9(수)**  
**오륜교회 비전빌리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540-1 (호번로 242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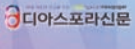
참가대상 KIMA회원 100명 (초청단체에 한함)  
 참가비 1인 3만원  
 등록 1차등록 ~10월 24일 2차등록 ~10월 31일  
 \* 현장등록없음  
 등록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입금  
 1. 신청 링크 <https://forms.gle/mpavbAYP5krMDQ9z6>  
 2. 입금 후 담당자에게 문자발송 시 등록완료  
 \* 입금안내 : 신협 137-009-844855 (계좌주:이연노)  
 \* 신청자명과 입금자명 동일 필수

문의 010.7320.3812 오영섭목사  
 010.3121.1604 은대범간사 [landmarkerministry@naver.com](mailto:landmarkerministry@naver.com)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 KIMA는  
 실천하는 단체 및 사역자들과 앞으로 30년간의  
 이주민 선교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2022 KIMA 포럼은 'Next 30 years' 라는 주제로,  
 지난 30여년의 이주민 선교 사역을 돌아보며  
 실제적인 평가를 하기 원합니다.  
 라운드 테이블에서의 풍성한 소통으로  
 "내부 역량 강화"를 도출할 것입니다.

초청된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미래 30년의 실행계획을 구축할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운영으로 풍성한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이에 이주민 선교 필드에서 애쓰시는 챔피언들이 오셔서  
 해안을 나누어주시길 정중히 초대합니다.

주최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  
 후원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디아스포라신문**  **CTS 기독교TV**  **CGNTV**  **GOODTV**

▲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KIMA) 포럼 개최 (11월 7-9일, 오륜교회 비전빌리지)

▼ 할렐루야교회 주관 이주민 선교대회 (10월 9-16일)


**TOGETHER**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  
 (월 3-6, 7)  
**2022 해외/이주민 선교대회**  
 10월 9일 (주일) ~ 10월 16일 (주일)

|                                                                                                                             |                                                            |                                                      |                                                                                                                               |
|-----------------------------------------------------------------------------------------------------------------------------|------------------------------------------------------------|------------------------------------------------------|-------------------------------------------------------------------------------------------------------------------------------|
| <b>10월 9일 (주일)</b><br>주일예배<br>김승욱 담임목사<br><b>10월 16일 (주일)</b><br>주일예배<br>마이클 오 목사<br>(국제로잔운동 총재)<br>특송<br>캄보디아 찬양팀 (올프렌즈교회) | <b>10월 11일 (화)</b><br>화요중보기도회<br>이승준 선교사<br>(행주외국인군로자살비교회) | <b>10월 12일 (수)</b><br>수요초청예배<br>김히버트 선교사<br>(PGI 총장) | <b>10월 14일 (금)</b><br>금요영성집회<br>문창선 선교사<br>(위디국제선교회 대표)<br>간증<br>프라이프러 자매 (캄보디아)<br>이현길 집사 (이주민교회집회)<br>특송<br>카메룬 찬양팀 (산소망교회) |
|-----------------------------------------------------------------------------------------------------------------------------|------------------------------------------------------------|------------------------------------------------------|-------------------------------------------------------------------------------------------------------------------------------|

이주민사역 사진 전시 - 2층 루아갤러리  
 해외선교사역 판넬 전시 - 2층  
 해외선교팀 / 이주민팀 부스운영 - 2층